

“정화회의는 청사서 퇴거” 판결

서울지법, 가처분신청 총무원 승소
 총무원 “14일까지 청사 비워달라”
 정화회의 “종교자유성 부정 유감”

- 판결문 전문 3·4면**
1. 피신청인(정화회의측)들은 별자목록 기재 건물(총무원청사)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총무원측)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정화회의측은 총무원 청사에서 퇴거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민사1부(부장판사 신영철)는 11일 오후 2시 조계종 총무원이 정화회의(의장 백암)와 원한, 정우, 성문스님을 상대로 지난달 14일 제소한 퇴거신청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정화회의측의 청사 퇴거, 총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소송비용은 정화회의가 일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총무원은 11일 오후 9시까지 청사를 비워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총무원은 정화회의가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청사를 반환 받기 위해 가능한 법적 절차를 모두 동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그러나 정화회의측은 “종교의 자율성과 자체 정화능력을 부정하는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히 항소의 의지를 보였다. 정화회의는 또 “대중중의 제도를 통하여 중정제하 및 원로회의의적법한 절차를 거쳐 총무원청사를 관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총무원측의 법집행과 정화회의측의 불복 방침에 따른 대응으로 조계종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과 관련 “11월 11일 승려대회는 적법성을 갖지 못했으므로 정화회의는 총무원 청사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없다”며 중정제하와 11월 14일 구부사원회의의 결정도 부정했다. 또 “원수님이 총무원장후보를 사퇴하여 더 이상 본정의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이유를 통해 “어려운 국가현실에서 상당수 국민의 정신적 충격과 그에 따른 중대한 회복하기 힘든 것”이라며 “민주적 평화적 방법으로 새 총무원장을 선출해 종단본연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임연태 기자 (yitim@buddhapia.com)**



○11일 정화회의측에 대한 퇴거 판결이 결정된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 청사는 또 한번의 분류로 피망든 속살을 드러낸 채 말아져 있다.

해결 실마리... 양금 해소 숙제로 남아

11일 퇴거신청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총무원 승소 판결은 조계종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또다른 법적 논쟁을 포함한 갈등 구조를 형성할 것인가. 총무원은 이번 판결의 후속 조치를 가능한 빨리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간의 업무공백을 극복하고 총무원장 선거를 재개하는 것이 종단 인정의 지름길이라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14일 오전 9시까지 청사를 비워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총무원은 정화회의가

한 정화회의는 가처분의 결정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본안 소송이나 이의신청의 방법을 통해 항소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승부 확실 효력을 발생하는 단행가처분의 성격이어서 총무원측의 판결에 따른 청사 반환 작업이 시간적으로 우선될 가능성이 많다. 불자들은 조계종 분류가 법원의 판결로 종지부를 찍게 될 경우, 징계등을 통한 새로운 갈등보다는 그간의 양금을 해소하고 화합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알림 TV 인터넷 불교정보사업 시작합니다

컴퓨터의 '컴'자도 모르는 '컴맹'도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집에서 보는 TV에 인터넷TV 수신기만 설치하면 간편하게 인터넷 검색에서 PC통신 전자우편까지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TV리모콘으로 작동하는 '인터넷 안방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불교정보화에 앞장서온 본사는 홈TV인터넷과 함께 인터넷 TV에 불교정보를 독점 제공합니다. 또, 인터넷 TV를 통해 종단 중

무형정 네트워크와 포교에 활약을 할 수 있는 정보화 사업을 개시합니다. 인터넷 TV에 가입하시면, 종단이나 사찰의 각종 공문, 법문자료 등을 인터넷TV로 송·수신할 수 있으며 불교뉴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종단과 사찰, 불자 가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기입 문의: 현대불교신문 전라정보실 (02)732-1520·737-8881**

농협 해남지부에 근무하는 문승식(45)씨. 그는 이지역 미술가들에게 '보살'로 통한다. 문씨가 이같이 불리는 까닭은 만나는 향토작가들에게 “꼭 한 번 좋은 일을 하세요”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기 때문이다. 이 한마디는 문씨가 10여년동안 입에 달고 다녔던 말이다. 최근 해남 대흥사 유물관에서 열렸던 '선화전'도 따지고 보면 이 말 한마디에서 비롯됐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다. 청소년교화연합회 해남지부(지부장 영주님)가 마련한 이 선화전은 향토작가와 소장가들이 대가없이 한 점씩 내놓은 선화들로 준비된 것. 전시회 이름도 '지역 청소년 장학금 조성 선화전'이다. 3일동안 계속된 선화전에서 모금한 장학금은 2천여만원. 중·고교생 1백여명이 수혜할 수 있는 큰 돈이다.



기. 장학금 조성 등에 자신의 작품을 쾌척할 수 있도록 마음을 이끄는 것이다. 대학시절부터 '미술애호가'였던 문씨는 원만한 향토작가들과 두터운 친분을 쌓고 있다. 그를 가운데에는 중앙 화단에 잘 알려진 가산 광학옥, 죽곡 박인혁씨 등도 있다. 그동안 문씨의 도움으로 전시회를 연 곳은 고창 선운사 등 10여곳. 매년 한 번씩 치른 것이다. 대흥사 선화전에 출품된 작품 70여점중 40여점이 이같은 노력으로 전시될 수 있었으며 1백만원의 호기하는 가산 광학옥선생의 선화 2점도 있다. “제가 해온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혼신의 힘으로 제작한 그림을 아무런 대가없이 쾌척한 향토 예술가들의 선량이 더욱 빛나야죠.” 문승식은 “저도 그림을 좋아합니다. 그림의 품격과 가격을 가능할 줄도 알구요. 하지만 장에는 좋은 그림이 없어요. 매년 한 번씩 여는 전시회에 내놓기 때문이죠. 남아 있는 그림 대부분은 좋은 일에 내놓기에 미안한 작품(?) 뿐이죠. 하지만 재가속 속에는 10여년동안 재 손을 거친 슬한 작품들과 도움을 받는 이웃들의 마음이 담겨있어요.” **오중욱 기자(gobaou@buddhapia.com)**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 <http://news.buddhapia.com>
 부다피아갤러리 <http://gallery.buddhapia.com>
 부다피아쇼핑몰 <http://mall.buddhapia.co.kr>

현대불교신문사와 홈TV인터넷이 함께하는 불교정보화의 새로운 출발

TV INTERNET으로 만드는 사찰전산화

- 기동TV에 단말기 연결
- 컴퓨터를 몰라도 간단한 리모콘 동작으로 인터넷 가능
- 불교계 뉴스를 현재시간으로 확인
- 국내외 인터넷 정보 사용 및 불교정보 검색 가능
- 사찰에서 TV를 통한 인터넷 접속 및 전자우편 확인
- TV 인터넷을 통한 실행 동기 가능
- 신형상당/불법공부/신도회의 대화가능
- 뉴스·홍보·경계·문화등의 다방면의 실용 정보 제공
- 화면 컬러 프린팅 지원
- 불교신자들 간의 대화·공감 제공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TV INTERNET의 강력한 기능

- 비디오와 같은 손쉬운 연결
- 전확선을 이용한 PC통신보다 20배 이상 빠른 고속 인터넷 접속
- 마우스가 내장된 무선키보드를 기본 제공하여 사용의 편리성
- 인터넷망을 이용한 운영체제(OS)자동 업그레이드
- 지루한 부팅 시간없이 5초내 단시간 인터넷 접속
- 고장의 염려없이 뛰어난 안전성
- 기존의 TV를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및 뛰어난 공간활용성

수신기 TV 무선 키보드 무선 리모콘

◎ 전국지사 및 대리점 모집합니다

HOME TV INTERNET 구성 : 기존 TV + 수신기 + 무선키보드,마우스 (단말기 가격: 395,000원, 부가세 별도)
 ◎ 인터넷망 : 케이블 TV, ADSL, ISDN, LAN, 전화선

· 사찰정보화 협력업체
 (주)현대불교신문사 : (02)737-8881(대표)
 부다피아 직통 : (02)732-1520

HOME 홈TV인터넷(주) · 주소 : 서울시 상동구 마장동 791-6 상경빌딩 3층 · 문의전화 : 02-295-6660